

성서 기본 지식

D.HEASTER 著
盧 賢 基 譯

基督教 教理 學習
教科書

학습 4

하나님과 죽음

韓國 聖書 研究院 發行

www.korbible.net

학습: 4 하나님과 죽음

- 4.1 인간의 본성
- 4.2 영혼(靈魂)
- 4.3 사람의 영
- 4.4 죽음은 무의식 상태이다
- 4.5 부활
- 4.6 심판
- 4.7 신자의 보상: 하늘인가 땅인가?
- 4.8 하나님에 대한 우리 책임
- 4.9 지옥

변론 11: 연옥 (煉獄)

변론 12: 유령과 환생설

변론 13: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변론 14: ‘공중 휴거(携擧)’

4.1 인간의 본성

대부분의 사람이 그들의 죽음 또는 죽음의 원인인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그와 같이 자기 성찰이 없음으로,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무지하여 일생을 방황하고 자기 소욕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인생이라는 짧은 항해 길에 오른 사람들은 죽음의 종착항으로 곧 이르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정체를 숨기고 깊이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우리는 필경 죽으리니,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같을 것이니라.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약.4:14; 삼하.14:14; 시.90:5-6).참으로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2).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짧은 시간계(時間界)의 존재인 관점에서,우리가 누릴 향수(享壽)를 계산하는 바른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어떤 사회에서는 죽음과 장례를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며 또는 인생이 끝나 없어진다는 감정을 적게하려고 한다.‘그리스도 인이라’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멸의 영혼이 있어 죽음 후에도 계속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근본 문제이며 비극이므로,사람들은 그 정신적 충격을 극소화하려고 한다.그러므로 죽음과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완전히 잘못된 논리가 생긴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기 위하여는 성서만을 상고해야 한다.우선 성서에 기록된바,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짓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만일 사람이 범죄하면 “정녕 죽으리라”(창.2:17)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에 반대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3:4)고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이다.죽음의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면을 부정하기 위하여 모든 거짓 종교가 생겨났다.특별히 이 분야에서,하나의 거짓 교리는 또 다른 것을 낳고,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그와 반대로 바울은 하나의 진리는 또 다른 진리로 진보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전.15:13-17).거기서 바울은 하나의 진리에서 다른 진리로 전개해 나갔다(만일 무엇 무엇이면 무엇이라고 반복하여 논한 것을 주목하라).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려면,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그 기록은 쉬운 말로 씌어져 있어,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창세기의 문장에 관한 변론:18을 보라).“야웨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존재(living creature)가 되니라...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너는 흙이니,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2:7; 3:19).여기에는 사

2 하나님과 죽음

람이 어떤 죽지 아니하는(Immortality)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 사람의 어떤 부분도 죽은 후에 살아남는 것이 없다.

사람은 오직 흙의 형성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서는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진흙이요”(사.64:8),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니라”(고전.15:47), 사람의 “근본은 흙이니라”(욥.4:19),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욥.34:14,15). 아브라함은 자기가 “티끌과 재같은 자라”(창.18:27)고 시인하였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 곧 하나님은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창.3:22,24).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멸의 요소가 있다면, 그렇게 쫓아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영생은 조건적으로 받는 것

복음 메시지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였거니와, 불멸 곧 사람의 영생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얻게하였다. 이것이 오직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불멸(不滅),- 임모탈리티(Immortality)의 형태이며, 범죄한 영혼이 고난 받으며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성서에서 논의된 사상은 아니다. 그 불멸 곧 임모탈리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을 통해서만 있는 것으로, 그 순종한 자들, 의인들이 보상으로 받아 임모탈리티의 완전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음 구절들은 임모탈리티는 조건적으로 얻게되는 것이며,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할 것이다:-

-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생명과 죽지 아니하는 것(Immortality) 드러내신지라”(딤후.1:10; 요일.1:2).
-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이것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어떤 불멸적 요소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다(요.6:53,54). 그리스도의 요한 복음 6장 강론은 그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며, 그에 관하여 바른 인식과 그를 따름으로서만 영생, 즉 임모탈리티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요.6:47,57,58).
-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요일.5:11).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

하나님과 죽음 3

는 자들은” 임모탈리티의 소망이 없는 것이다.그리스도를 통해 서만 임모탈리티를 소유할 수 있다.그는“영생의 창시자이시다”(행.3:15).“그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根源)이 되시도다”(히.5:9).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임모탈리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생겨난 것이다.

- 참된 신자는 임모탈리티를 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그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롬.2:7; 6:23; 요.10:28). 우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이 그리스도 재림에서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되는 것이다”(고전.15:53). 이처럼 임모탈리티는 약속된 것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요일.2:25).

- 하나님 홀로 불멸, 죽지 아니함을 가지고 있다(딤후.6:16).

4.2 영혼(靈魂)

이미 상고한 바를 비추어 보면, 사람이 본래부터 “불멸의 영혼”, 또는 그 어떤 불멸의 요소를 가졌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이제는 그 “영혼이라”는 낱말에 엉켜있는 혼동을 말끔이 씻어버리도록 하겠다.

성서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와 헬라어 “푸쉬케(Psyche)”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할 것이었다:-

몸(身體)

숨(呼吸)

피조물(被造物)

심정(心情)

마음(心)

사람(人)

‘영혼(靈魂-Soul)이란’ 낱말은 사람, 몸, 또는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유명한 해상 조난신호(遭難信號)로 쓰이는 ‘S.O.S’.(Save our Souls)라는 신호는 분명히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그 영혼(Soul)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여러 현대 역본은 ‘영혼(Soul)’이라는 낱말 대신에 ‘사람이라’는 낱말로 번역되어 있다.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을 ‘생물’(영혼-Soul), ‘움직이는 생물(영혼)이라’고 불렀다(창.1:20-21).“생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낱말 ‘네페쉬’는 또한 “영혼이라”고도 번역하였다.그 실례가 창.2:7에 있는 바, 사람이 “살아 있는 영혼(생명-生靈)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동물이 ‘영혼-

4 하나님과 죽음

생물인 것'과 같이, 사람은 '영혼-생물'이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오직 한가지, 인간이 동물보다 정신적인 면이 우수한 것 뿐이다. 사람은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창.1:26),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죽지 아니하는 것은”(딤후.1:10), 즉 복음의 소망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근본적 본성과 죽음의 특성에 관하여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없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도다. 다 흠으로 말미암아 임하였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 나니, 다 한 곳(무덤)으로 가도다”(전.3:19,20). 전도서 저자는 이 어려운 사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전.3:18).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은 겸손하게,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보호 본능으로 생활하며, 적자 생존이며, 번식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동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시험하신 것이다”(전.3:18). 즉 진실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서” 낙제한 것이다. 인간이 동물보다 아주 우수하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20세기 온 세계에 퍼져있는 철학 사상이다. 우리는 그 인간 철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 뿐이니라”는 말씀(시.39:5) 이해해야 한다. “야웨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렐.10:23).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몸은 “움직이는 생물이며” 결국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혼” 즉 생물은 죽는다. 영혼불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성서에서 번역되고 있는 ‘영혼’이라는 낱말은 죽음과 멸망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영혼’이라는 낱말을 이같이 사용한 사실은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불멸이 아니라는 것이다:-

-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겔.18:4).
-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멸할 수 있다(마.10:28). 다른 곳에도 영혼이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겔.22:27; 잠.6:32; 레.23:30).
- 하술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영혼)이 칼날에 진멸되었다(수.11:11; 10:30-39과 비교하라).
- “모든 생물(영혼)이 죽더라”(계.16:3; 시.78:50과 비교).

하나님과 죽음 5

- 모세의 율법에는 자주자주 어떤 법을 불순종하는 “사람(영혼)은” 죽이라고 하였다(민.15:27-31).
- 영혼이 죽을 수 있다고 이해해야 그것이 그물에 걸리며 또는 영킨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잠.18:7; 22:25; 욥.7:15).
-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시.22:29).

그리스도는 그의 “영혼- 몸을” 죽게하여 속건 제물로 드렸다(사.53:10,12).

‘영혼’이라는 낱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멸적 불꽃이든가 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 또는 그 몸을 가리키는 낱말이다. 매우 분명한 실례들이 있다:-

-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souls-영혼) 죽인 죄가 묻었나니라”(렘.2:34).
- “누구든지(어떤 영혼)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 그 본 일이나 그가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누구든지(어떤 영혼-a soul)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누구든지(어떤 영혼-a soul)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허물이 있을 것이니라”(레.5:1-4).
- “내 영혼아 야웨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聖號)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웨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103:1-2).
- “누구든지 제 목숨(soul-영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8:35).

이와 같이 세상 일반이 자주 말하는 영혼(靈魂)이라는 것을 성서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요소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the soul of the people was much discouraged because of the way)”(민.21:4). 사람의 마음을 영혼이라고 하였다.

6 하나님과 죽음

4.3 사람의 영(靈)

불행하게도 영혼(Soul)과 영(Spirit)이라는 낱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성서를 그릇되게 번역하여 영혼과 영을 동일한 의미로 해놓은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시켜 놓았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영혼’을 ‘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혼’과 ‘영’은 통상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며, 그것들은 “찢어 찢어 수도 있는” 것이다(히.4:12).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루하흐’(Ruach)이며, 헬라어 낱말은 ‘뉴우마’(Pneuma)로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생명(生命)	영(靈)
마음(心)	바람(風)
호흡(呼吸)	

우리는 학습 2.1에서 하나님의 ‘영’의 개념을 공부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하여 그의 창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생명력이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약.2:26). “야웨 하나님이 생기(영)를 그 코(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생물(living being)이 된지라”(창.2:7). 육은 “하나님의 영 - 생명력”이 “그의 코”에 있다고 말하였다(욥.27:3; 사.2:22과 비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은 우리가 날 때에 받는 것이며, 우리 몸이 살아 있는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어떤 것에서든지 철수할 때에 그것은 곧 멸망, 죽고 만다. -그 영은 생명력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그의 호흡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멸망하고(즉 죽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욥.34:14-16). 이 마지막 구절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의 본성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서 취하여 감으로, 우리 몸이 죽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 작용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다윗의 인식이 그로 하여금 연약한 인간 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주장에 반격하고 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圖謀)가 소멸하리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웨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46:3-5).

사람은 죽음으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전.12:7).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든지 나타

하나님과 죽음 7

나는 것을 가리켰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요.4:24).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우리는 ‘마지막 호흡’을 한다. 그 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흡수되고 만다. 그리하여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피조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죽음의 과정이 동물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과 동물은 동일한 영, 또는 생명력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다.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전.3:19). 이것은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의 가는 곳이 다르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3:20-21). 사람과 짐승이 동일한 영이 있고 동일하게 죽는다는 묘사는 사람과 짐승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묘사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바, 그 양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았으며(창.2:7; 7:15), 그 홍수에서 동일하게 죽어갔다: “땅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창.7:21-23).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시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시.90:5). 창세기 7장에 있는 기록은 사람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의 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의 본래의 상태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생명의 영을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4 죽음은 무의식 상태이다

이제까지 학습한 영혼(靈魂-Soul)과 영(靈-Spirit)에서, 사람은 죽으면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 부응하여 행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지만(말.3:16; 계.20:12; 히.6:10), 우리가 죽어 있는 동안은 아무 것도 의식하지 못한다. 성서는 그것을 다음 구절들로 입증하고 있다:-

-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圖謀)가 소멸하리로다”(시.146:4).
-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지 오래니라”(전.9:5-6).

8 하나님과 죽음

-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 이니라”(전.9:10). 죽은 후에는 생각이 없는 무의식 상태이다.
- 욥은 죽음에 대하여, 사람이 일단 죽게 되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 같은 것이라”(욥.10:18)고 하였다. 그는 죽음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던 상태로, 영원한 망각(忘却), 무의식 상태로 생각했었다.
- 사람은 짐승이 죽는 것같이 죽는다(전.3:18). 만일 사람이 죽어서도 의식이 있다면, 성서와 과학의 논증은 거짓이 되고 만다.
-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시.103:14-16).

하나님의 종들이 죽음은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반복한 호소에서 죽으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으로 되는 것을 충분히 확증하였다. 히스기야(사.38:17-19)와 다윗(시.6:4-5; 30:9; 39:13; 115:17)은 그것의 좋은 실례이다. 죽음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잠자는 것, 또는 휴식하는 것으로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다(욥.3:11-13,17; 단.12:13).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인이 죽은 후에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 보상을 받고 축복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다. 사람의 본성과 죽음에 관한 참된 교리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제공한다. 인생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 후에 그 무덤은 총체적 망각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는 자들은 이 망각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비극적 세상에서 살고 간 수많은 인생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그 공포와 그 헛된 소망도 재현될 수 없을 것이다.

성서를 공부하면, 진리 체계를 찾아내며, 또한 인간의 그릇된 종교적 개념의 체계도 알게 될 것이다. 이 생의 끝인 죽음을 미화하게 하려는 인간의 필사적 노력은 ‘사람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에게 불멸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한번 받아들이면, 죽은 후에는 필연적으로 그 어느 곳에 그것이 가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서로 다르게 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하늘이라는 ‘선한 영혼’이 가는 곳이 있고, ‘악한 영혼’이 가는 지옥이라는 곳을 결정해 놓았다. 그 ‘불멸의 영혼이란’ 성서로는 입증할 수 없다고 이미 가리킨 바가 있다.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 허황된 사상을 이제 분석해 보겠다:-

하나님과 죽음 9

1. 죽음 후에 우리 신앙 생활의 보상으로 우리 “불멸의 영혼”을 위하여 주어지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2. 의인(義人)과 악인(惡人)이 죽은 후에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3. 그 의인의 보상은 하늘이라는 것이다.
4. 만일 사람마다 그 ‘불멸의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은 하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5. 그 악한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분석한 상기한 것들이 모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점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서에는 사람의 본성에 관한 가르침이 아주 바르게 진리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5 부활(復活)

성서는 그 의인의 보상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살전.4:16).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 하실 첫째 일은 믿고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이며(학습 4.8을 보라), 그 다음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 간다면, 부활은 필요 없을 것이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전.15:32). 그는 죽어서 그의 믿음의 보상으로 ‘영혼’이 하늘에 갈 것이라고 논증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제시한 의인의 보상은 형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된 자들에 주실 보상이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였다(눅.14:14).

성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 그 무엇이든지 형체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낮은(vile)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빌.3:21)고 하셨다. 지금 처럼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에너지(energy)를 공급 받고 사는 실제적 형체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상으로 그런 형체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심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고후.5:10). 육신적 생활을 한 자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체로 남을 것이며, 그것이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반면에 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극복한 자들은 영이 충만한 형체의 몸인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갈.6:8).

10 하나님과 죽음

의인의 보상이 육체적 형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다. 한번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언제든지 부활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분명히 죽음에서 끝이 난다. 우리 몸이 다시 창조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때까지 죽음의 무의식의 상태로 있고, 부활하여 그 영생의 형체의 몸으로 임모탈리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장은 부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고전.15:35-44 까지에는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체가 주어지는 것같이, 죽은 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 몸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그의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이 불멸의 몸으로 변한 것같이, 신자도 보상으로 그것을 받을 것이다(빌.3:21).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은, 그가 부활을 통하여 받은 그 보상을 우리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롬.6:3-5). 우리는 지금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그의 보상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 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4:10).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8:11).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으로, 몸이 불멸의 것으로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롬.8:23).

실제로 몸의 형체를 보상으로 받을 우리의 소망은 초기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답사한 모든 가나안 땅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 받았었다(창.13:17. 학습 3.4를 보라). 그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은 어떻든지 그의 몸이 장차 부활하여 불멸의 것이 되어, 그것을 영원히 받을 것을 믿었던 것이다.

욥은 그의 몸이 무덤에서 구더기에게 먹히어 없어질지라도 몸이 있는 형체로 보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찢은 후에 내가 내 육체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 19:25-27). 이사야의 소망도 그와 마찬가지로였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라”(사.26:19).

예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에 그와 유사한 말이 있다. 그의 영혼이 하늘에 갔다고 그의 누이들을 위로하는 대신에, 주 예수께서는 부활의 날에 관하여 말하였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 말씀에 즉각 대답한 그 대답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던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줄을 내가 아나이다”(요.11:23-24). 욥과 같이 그녀는 죽음이 하늘에 축복 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지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주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께 듣

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5, 44).

4.6 심판(審判)

심판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은 그 한 믿음의 기본 교리의 하나로, 침례를 받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행.24:25; 히.6:2). 성서에는 자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터득하고 믿는 자들이 보상 받을 날, “심판 날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벧후.2:9; 3:7; 요일.4:17; 유.6).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14:10).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5:10).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환상 중에는 보좌의 형태로 이 심판대가 베풀어져 있었다(단.7:9-14). 또한 비유의 말씀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가리키고 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금 몇 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사정(査定)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다(마.25:14-29). 어부들의 물고기 잡는 비유에는 그물에 해당하는 복음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나중에 그들이 앉아서 모은 그 고기들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어 담았다(마.13:47-49). 그 해석은 간단하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라”.

우리가 학습한대로, 주께서 재림하고 부활이 있는 후에, 그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을 특별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평가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적될 것이다. 의인만이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들이 구별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 -눅.1:32,33) 앉으리니, 모든 족속을(모든 나라로부터 마.28:19 비교)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5:31-34).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의인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신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된 보상인 영생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자는 죽음의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몸을 가진 어떤 형태의 존재로 있지 아니하므로, 몸이 없이 의식만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의식이 없는

12 하나님과 죽음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서의 교리이다:-

-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5:4; 1:13과 비교하라).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리니”(딤후.4:1,8).
- 끝날에 메시야가 재림하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단.12:2; 창.3:19과 비교하라).
-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타나리라”(요.5:25-29).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우리가 그 보상을 받으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보상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이 우리 “기업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벧전.1:4-5)고 베드로가 선언하였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 요한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이 바르게 해석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하늘에 간직한 보상),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다른 곳에서는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와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계.22:12). 그것은 우리가 상고한바, 그의 심판에서 주실 것이다. 그는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눅.1:32,33).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할

하나님과 죽음 13

것이며, 우리도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신다”는 그의 약속은 우리가 그의 심판대에서 그에게 용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다. 마태 복음서에도 그와 같은 헬라어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이다(마.1:20). 그러므로 그 말은 예수께로 이동하는 육체적 움직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그 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 심판대에서 주실 것임으로, 의인과 악인은 모두 죽은 후 동일한 장소에 갈것인바, 그곳은 무덤이다. 그들이 죽은 후 아무 차이도 없는 것이다. 다음 구절들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요나단은 의로웠고 사울은 악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삼하.1:23)라고 하였다.
-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후 동일한 장소로 갔다고 하였다(삼상.28:19).
- 의로운 아브라함은 죽은 후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창.25:8). 그 열조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수.24:2).
-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전.2:15,16).

이것은 모두 일반 ‘그리스도교의 교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다. 의인은 죽은 후 곧 하늘에 간다는 그들의 가르침은 부활과 심판의 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복음 메시지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가리키고 있다. 일반 그리스도교의 생각은 의인은 죽은 후 즉각 하늘에 가서 보상을 받고 그곳에서 계속 사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의인이 동시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성서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다:-

- 심판대에서 양을 하나씩 염소들에게서 갈라내고, 그 심판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양을 그의 오른쪽에 모을 것이다.
-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5:34). 이처럼 성도는 동시에 상속한다.
- “그리스도께서 돌아와 추수하는 심판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은 함께 기뻐할 것이다”(요.4:35,36; 마.13:39과 비교).
- 계.11:18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그의 종들, 성도들, 즉 모든 신자들에게 보상하는 때를 정의하고 있

14 하나님과 죽음

는 것이다.

-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성서의 모든 의인들을 나열한 장이다. 그 13절에 는 이같이 해설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다”(히.11:8-12)고 하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죽은 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늘에 가서 그 보상을 받았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그 39와 40절에서 말하였다. 그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의 약속의 보상에 관한 지연(遲延)은 모든 충성된 자들이 모두 동시에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그의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4.7 신자의 보상: 하늘인가 땅인가

상기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아니고 하늘일 것이라 하는 사람은 그 약속된 보상을 설명하고 있는 다음 구절들을 상고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주의 기도문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마.6:10).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졌고, 땅은 파괴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수천만의 많은 사람이 생각없이 매일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조리한 것이다.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마.5:5). 영혼이 하늘에 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시.37편을 인용한 것으로, 그 전체는 의인의 최종 보상이 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바로 그 장소에서 악한 자들이 잠시동안 향락을 누렸으며, 의인은 그 악한 자들이 지배하였던 그곳에서 영원히 보상 받는 것이다(시.37:34,35).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시.37:11,22,29). 그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으며, ...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행.

하나님과 죽음 15

2:29,34)고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다(행.2:22-36).

-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지역이다. “하늘은 야웨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시.115:16).

- 의인들이 심판대에서 옳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는 함성을 묘사한 것이 있다(계.5:9,).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그림은 우리가 하늘 어느 곳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막연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예언들은 세상 정권들이 결국 그리스도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에 귀속될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 나라의 지배는 온 천하에 이를 것이다(단.7:27; 2:35; 그 44절과 비교). 그 영원한 나라를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단.7:27). 그러므로 그들의 보상은 하늘 아래 땅에 수립될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다.

4.8 하나님에 대한 우리 책임

만일 사람이 나면서부터 어떤 ‘불멸(不滅)의 영혼(靈魂)을’ 가졌다면, 그는 보상을 받든, 또는 저주를 받든지 간에, 그 어느 곳으로 갈 운명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서는 사람은 본래 어떤 불멸성도 없는 동물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받게 된다.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모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동물과 같이, 사람은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까닭에, 이런 범주의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활하고 못하는 것은 심판 받을 책임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고 그것에 잘 부응했는 자를 심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셨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12:48).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든가 이해하지 못하였던 자들이나, 또는 그를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다든가 또는 거절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2:12).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짐

16 하나님과 죽음

승과 같이 멸망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알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은 죄를 알게 한 것이라”(롬.5:13; 요일.3:4; 롬.3:20)고 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범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므로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 없으니, 부활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이 죽어서 그대로 무덤에서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 준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과 같이 멸망하느니라”(시.49:20). “양과 같이 저희가 무덤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나이다”(시.49: 14).

하나님의 도(道)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는 행동에 책임이 있으므로, 부활하여 심판에서 그 책임을 완수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또는 침례를 받은 자들은 부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한 그들의 지식의 실천이 있었는가 하는 심판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성서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 요.15:22은 말씀의 지식은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 “핑계하지 못한다”(롬.1:20-21)고 하였다.
-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5,44).
-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의 길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다(행.17:30).
-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니라”(눅.12:47-48).
-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4:17).
-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특별한 책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계시하신 까닭인 것이다(암.3:2).
- 이 책임에 관한 교리 때문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

하나님과 죽음 17

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벧후.2:21) 하였다.

- 이에 해당하는 구절이 여러 곳에 있다: 요.9:41; 3:19; 딤후.1:13; 호.4:14; 신.1:39.

심판에서 책임을 추궁 받지 않을 사람은 부활이 없으며, 심판도 없다. 즉 복음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는 “짐승 같이 죽고 소멸하는 것이다”(시.49:20).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다:-

- 옛 바벨론 나라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죽은 후에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렘.51:39; 사.43:17).

- 이사야는 부활의 소망으로 자위(自慰)하였다: “야웨 우리 하나님 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불레셋과 바벨론)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외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멸하여 멸하시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사.26:13-14). 그들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세번씩이나 거듭 강조한 것에 주목하라. “다시 살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며, 그 모든 기억이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으므로 부활의 기대가 있었다: “주의 죽은 자들은(이스라엘) 살아나겠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사.26:19).

-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에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 이라”(단.12:2). 이처럼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므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사람들은 “야웨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암.8:12-14).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의무:-

1.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18 하나님과 죽음

2. 그 책임이 있는 자가 부활하게 되고 그 심판대에서 판단을 받는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들과 같이 영원히 죽어 소멸된다.

이 결정적 제시는 자기 멋대로 믿으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성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현재와 역사상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 장애로 성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연령에서 죽어갔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부모가 아무리 영적이었는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부활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교리는 완전히 인간의 생각이나 욕망,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다. 우리 인간은 하찮은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 그 진리의 인도를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인간이 경험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사람들은 성서의 인도가 없어도, 상기한 바와 같은 사람들은 생명의 소망이 없을 것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질문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롬.9:20).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불의하다든가 법이 없다든가 힐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윗왕의 기록을 보면(삼하.12:15-24), 그의 갓난 아이의 병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그 아이가 죽게 되자 기도를 그만두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웨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의 아내를 위로하였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른 아이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이 책임에 관한 원칙을 터득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실천해야 하며 그 실천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에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실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독생자를 주사,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요일.4:8; 뱀후.3:9; 요.3:16). 그는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진정 원하시고 있다.

하나님과 죽음 19

그와 같이 놀라운 영예와 특권이므로, 큰 책임이 동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렵다든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원한다면, 그가 제공하신 구원이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피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 진가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가 군중 속을 헤치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책임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신호들을 열심히 찾으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를 더욱더 알고자 하는만큼 우리는 그의 사랑의 위대함을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그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과 그의 소원을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므로, 그의 최상의 거룩함에 관한 우리의 경외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9 지옥(地獄)

세상 일반 사람들이나, 또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지옥(地獄)에 관한 일반의 개념이 사람이 죽은 후에 곧 바로 그 ‘불멸의 영혼이’ 가게 되는 악한 자를 형벌하는 장소, 또는 심판에서 용납되지 못한 자들이 고통 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즉 무덤이라고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지옥이라고 번역된 본래의 히브리 낱말은 ‘스올’(sheol)로서, “떨어두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낱말이 그릇되게 번역된 성서를 읽고 있는 것이다. 성서로는 이 ‘떨어두는 곳’, 또는 지옥이라고 한 곳은 무덤이다. 그 본래의 낱말 ‘스올’이 무덤으로 번역된 실례가 성서에 많이 있다. 현대역 성서에는 그 ‘지옥’이 더 많이 ‘무덤’으로 번역되어 있다. ‘스올’이 ‘무덤’으로 번역된 몇개의 실례를 들어, 악한 자를 영원히 형벌하는 유허불이 붙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 개념을 깨뜨려야겠다:-

-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Sheo-무덤)에서 잠잠케 하소서” (시.31:17). 그들이 죽어 들어가 있는 무덤에서 소리를 지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하나님은 내 영혼(사람 자체)을 음부(Sheo-무덤)의 권세에서 구

20 하나님과 죽음

속하리로다”(시.49:15).다윗의 영혼 또는 그의 몸이 무덤 또는 음부에
서 부활할 것이다.

지옥(무덤)이 악인을 형벌하는 곳이며 그 보복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리
고 의인은 그 지옥(무덤)에 가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호.13:14)은 이
것을 확증하고 있다.“내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음부(무덤-Sheol)의 권세에서
속량(贖良)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구절은 고전.15:55 에서 인용하였으며,
그리스도 재림에서 부활할 것에 적용하였다.마찬가지로 둘째 부활에 관한 환상에서
(학습 5.5을 보라),“사망과 음부(무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
매”(계.20:13)라고 하였다.사망을 무덤(지옥)에 필적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에 주목
하라(시.6:5을 보라).

사무엘서에 있는 한나의 말은 더욱 분명하다: “야웨는 죽이기도 하시고,살리
기도 하시며 음부(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삼상.2:6).

‘지옥’이나 ‘음부’가 무덤인 것을 알게되면,의인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그 구원을 기대할 것이다.이처럼 우리는 ‘지옥’,또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
며,나중에 부활하여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입증한 가장 적합한 실례가
예수의 것으로,그의 “영혼이 음부(무덤)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행.2:31)라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의 ‘육체’, 또
는 몸이 동일한 것에 주목하라. 그의 몸이 그 음부(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은 그의 몸이 당분간,즉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
스도께서 지옥(음부)에 갔었다는 것은 지옥이 악한 자만이 가는 곳이 아님을 입증
하는 것이다.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가 ‘지옥(陰府)’, 즉 무덤에 가게 된다.이처럼 예수는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도다”(사.53:9)라고 하였다.이것과 일치하게 또 다
른 의인들이 지옥(무덤)에 간 실례가 있다.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죽었다는 소식
을 듣고 “내가 슬퍼하며 음부(陰府-무덤)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창.37: 35)
고 말하였다.

범죄의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들 중에 하나이다(롬.6:23;
8:13; 약.1:15).우리는 죽음이 완전한 무의식 상태라는 것을 이미 배웠다.이같이
죄는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홍수에서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과 같이
(눅.17:27-29),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이(고전.10:10),완전히 멸
망시키는 것이다(마.21:41; 22:7; 막.12:9; 약.4:12).그 두가지 사건에서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죽어서 멸망하였다.그러므로 악인들이 의식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죽음 2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다(롬.5:13). 이런 입장에 있는 자들은 죽으면 그대로 무덤에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서 합당한 자는 영생을 얻고 합당치 못한 자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던 자들 중에 다시 죽게 되며,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있을 자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둘째 죽음이라”고 하였다(계.2:11; 20:6). 이 사람들은 한번 죽어, 그 의식이 아주 없는 죽음의 상태였다가, 그리스도 재림시에 부활하여 그의 심판을 받고 첫째 죽음과 같이 둘째 죽음으로 형벌 받고 아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 그들의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죽음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였다. 성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한 실례가 신.11:4 에 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의 멸망을 영원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홍해 물로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구약성서 시대 초기에도 신자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책임 있는 악인은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욥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였다: “악인은... 멸망의 날을 맞으려 끌려 나감이 될 것이며, ...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욥.21:30-32).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을 하는 과정을 말한 비유들의 하나는 그 악한 자가 그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눅.19:27). 이것은 악한 자가 의식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면서 계속하여 고문을 받고 있다는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70 평생의 행위에 대한 영원한 고문,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형벌이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형벌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토록 형벌을 가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다(겔.18:23,32; 33:11; 뱀후. 3:9과 비교).

성서에서 이탈되어 있는 그리스도교가 ‘지옥’을 유형불로 고문하는 곳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그 ‘지옥’(무덤)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다. “양 같이 저희를 음부(무덤)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시.49:14). 이 말씀은 무덤이 평화로운 망각의 곳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혼, 또는 그의 몸이 3일 간 음부(무덤)에 있었으나, 썩지 아니하였었다(행.2:31). 음부가 이른바, 불붙는 지옥이었다면 그 몸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주위 국가들의 용사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평안히 누워있다고 묘사하였다.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무덤)에 내려 자기 칼을 베개하였으니,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겔.32:27-30). 이것은 용사들을 무덤에 묻을 때에 그 병기와 함

22 하나님과 죽음

께 묻었던 관습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체가 칼을 베고 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음부”, 또는 ‘지옥’은 무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용사들이 누워있는 ‘음부’, ‘지옥’ 또는 무덤을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 또는 영혼에 고문을 가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다. 베드로가 어떤 악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행.8:20).

또한 요나가 경험한 기록은 이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큰 물고기에게 산채로 삼키웠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야웨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야웨께 불러 아뢰었삽더니...내가 음부(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욥.2:1,2). 이 “음부의 뱃속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물고기 뱃속은 정말 그를 ‘삼켜버렸던 곳이며’, 그것은 그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올’의 본래의 의미인 것이다. 분명히 그 ‘음부’ 또는 ‘지옥’이 유향 불이 영원히 불붙는 곳이 아니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에 그가 나올 수 있었던 “음부의 뱃속이”었다. 이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마.12:40을 보라).

비유적 불

그렇지만, 성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하여 영원한 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무덤에서 죄인이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악의 도성 소돔이 “영원한 불로” 멸망하였다(유.7). 즉 그 도성은 그 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망된 것이다. 오늘날 그 도성은 사해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폐허로 남았다. 우리가 그 ‘영원한 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불이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그곳에 불은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불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렘. 17:27).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사.2:2-4; 시.48:2). 예루살렘의 큰 집이 불에 타버렸지만(왕하.25:9), 그 불은 계속 타고 있지 아니한다.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 없이 떠오르며, 세세에 황무하여, ...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할 것이라...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게 되는 불로 형벌하였다”(사.34:9-15). 폐허가 된 에돔 땅에 동물과 초목이 있는 것을 보면, 문자 그대로 불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불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것이다.

그 “영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말과 헬라말의 구절은 엄격히 말하자면, “세대(世代)동안이라”는 의미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 나라의 세대라”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에스겔서에 그 실례가 있다(겔.32:14, 15). “산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 필경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

하나님과 죽음 23

시리라”(사.32:14-15). 이것은 그 ‘영원한 불의’ ‘영원을’ 이해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몇번이고 되풀이하여 불과 같은 것이었다.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 불 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렘.7:20; 다른 실례들.- 애.4:11; 왕하.22:17에 있다).

불은 또한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그리스도 재림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말.4:1). 그 초개, 또는 인간의 몸이 불에 타서, 진토로 돌아갈 것이다. 어떤 물질도, 특별히 사람의 육체를 문자 그대로 영원히 태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영원히라’고 한 말은 문자 그대로 영원한 고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불은 그 불붙을 것이 없어지면 꺼지는 것으로 영원히 탈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음부(陰府)’, 또는 ‘지옥(地獄)’이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에 주목하라(계.20:14).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년왕국-하나님의 나라 후에는 세상에는 다시 죽음이 있지 아니 할 것이므로, 상징적으로 무덤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다.

게헤나

신약성서에는 두가지 헬라어 단어가 ‘지옥’, 또는 ‘음부’로 번역되어 있다. ‘하데스’(Hades)는 히브리말 ‘스올’(Sheol)과 같은 것이며, 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게헤나(Gehenna)’라는 헬라 낱말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도성 밖에 쓰레기를 태우던 곳으로, 그 도성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현대 도시가 그런 쓰레기 집하장을 가지고 있어 그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그 ‘게헤나’라는 말은 고유명사로, 실제의 장소이며, 다르게 번역되지 아니하고 ‘지옥이라’고 해놓았다. ‘게헤나’는 히브리말, ‘힌놈의 아들 골짜기’(Ge-ben-Hinnom)의 아람말인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으로(수.15:8), 그리스도 시대에는 그 도성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다. 또한 그곳에서 처형된 죄인의 시체를 태우기도 했던 곳으로, ‘게헤나’는 완전한 멸망과 처벌로 상징되는 말이 되었다.

다시 지적할 점은 그곳에 버려진 시체들은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타버린 후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은-그 심판 날에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히.12:29). 죄에 대한 그의 진노는 죄인들을 영원히 타는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실 때에, 그 ‘게헤나’는 그의 백성의 죽은 시체로 가득 차있었다(렘.7:32,33).

그것에 정통했던, 주 예수께서 ‘게헤나’ 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구약성서의 생각을 모두 꺼냈던 것이다. 그가 재림하여 심판할 때에 버림 받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24 하나님과 죽음

지옥(게헨나) 불에 들어가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막.9:43, 44)고 그는 자주 말하였다. 게헨나는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버려 소멸시키는 곳이라고 마음에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불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관용어이며, 죽음으로 죄인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완전 멸망을 말하는 동일한 관용어이다. 문자 그대로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가 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게헨나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한 자를 형벌하던 장소였다는 사실은 그 게헨나라는 비유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기에 적합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변론 11: 연옥(煉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연옥(煉獄)’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곳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장소라고 한다. 그들은 그곳이 깨끗하게 하는 장소로,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기에 적합하도록 그곳에서 당분간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당에 촛불을 켜는 비용을 헌금하는 것이 ‘연옥’에서 고통 받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지한 그릇된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밝혀질 것이다:-

- 성서는 그런 곳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아니하였다
- 영혼이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불멸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옥은’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무덤이다.
- 성도의 구원이 하늘에 가는 것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구원은 사람이 죽은 후 한동안 연옥에 있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에서 주시는 것이다(마.25:31-34; 계.22:12).
- 의로운 사람이 죽은 후에 한 사람씩 다른 시간에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받는 것이다(히.11:39-40; 딤후.4:8).
- 사람은 죽자마자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며, 그 연옥설과 같이 죽은 후에도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우리는 죽은 후에 얼마 동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와 그의 역사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발전시키므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

활에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말씀과(고전.5:7), 죄에서 깨끗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2:21).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히.9:14). 그러므로 그 정결케 하는 시기는 죽은 후에 들어가는 이른바, 연옥에서가 아니라, 현재 생활하는 동안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우리는 그 ‘연옥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 것에 의하지 않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생활에서 영적 성품을 발전시키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갈.6:8).

카톨릭교 성당에 촛불을 켜든가, 또는 헌금을 드리는 따위 사람의 노력이 구원을 얻는데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라”(시.49:6-9).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구원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변론 12: 유령(幽靈)과 환생설

사람이 죽어서도 영혼이 있어서, 또는 영이 있어서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은 인류 초기부터 사람의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위하려는 데서 생긴 개념이다.

사람의 영은 사람에게 있는 호흡/생명력으로 사람에게 있다가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하였다(전.12:7). 이것은 그 영이 이른바 ‘유령(幽靈)’처럼 돌아다니든가, 또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소유함으로 그 사람이 그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후.5:10). 우리의 행동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어떤 것에 의한 기능이라면,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심판 받으며 보상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은 터무니 없는 생각인 것이다(계.22:12).

사람은 죽을 때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의식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교제한다는 것은 성서에 비추어 볼 때에 심각한 오해이다(사.8:19,20을 보라). 성서는 사람이 죽은 후 그의 이전 있던 집이나 동네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가리키고 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런 영이나, 또는 ‘유령’이 떠돌아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옳은 사람들의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다음

26 하나님과 죽음

과 같이 논평하였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 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욥. 20:7-9). 다시 욥은 이와 유사한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무덤)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욥. 7:9, 10). 마음에 이 말씀을 진정 받아들이고, 죽은 자의 영혼을 보았다든가 그 혼이 구천에 떠돌아 다닌다든가 하는 엉터리 없는 이야기를 듣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변론 13: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영생과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에서 충성된 자들이 받는 본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선 그 심판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을 모아서 심판하게 된다. 보상으로써 죽지 아니하는 몸은 심판에서 주시는 것이므로, 그들의 부활한 몸은 죽을 수 있는 몸인 것이다. 만일 그들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마. 25:34); 그러므로 충성된 자들이라도 그 심판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고전. 15:50, 51, 53). 죽을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본성의 변화는 심판대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그 나라에 들어간다.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자들이 심판 후에 영생을 받게 될 것임으로, 자주 그 “부활을” 의로운 자들의 부활 -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였다. 물론 그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잘 알고 있었다(행. 24:15). 그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인식하고(요. 5:29) 있었다.

바울은 “부활에” 관하여 말할 때에,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였다. 의로운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나온다. - 그들이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심판을 받고 다음에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 전체 과정이 “생명의 부활이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그 생명의 부활은” 다른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하노니”(빌. 3:11). 그는 책임이 있는 자였으므로 심판에서 보상을 받도록 부활될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부활에 이르는 것의” 그 “부

하나님과 죽음 27

활은”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또 다른 실례들이 있다(눅.14:14; 20:35; 요.11:24; 고전.15:21,42; 히.11:35; 계.20:6). 다윗은 그 보상을 “깨어나는 순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시.17:15). 그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부활에 관하여도 바울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용한 “부활이라”는 낱말은, 고린도전서 15:52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Immortality)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그 구절에서 “죽은 자들이란” 의로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심판에서 영생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고전.15:13,21,35,42; 살전.4:16; 빌.3:11; 계.14:13; 20:5,6).

데살로니가 전서 4:16,17은 그리스도 재림에 있을 사건들을 나열하였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

2.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3. 책임 있는 자들을 신속하게 심판 자리로 데려간다

그 영생은 이 모임에서 주시는 것이다(마.25:31-34; 13:41-43).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는 것 - 영생은 부활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의로운 자가 부활 후 모두 동시에 보상 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마.25:34; 히.11:39-40). 부활한 자와 살아 있는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활한 자들에게 즉각 죽지 아니함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 개념은 매우 제한적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전혀 그 제한이 없으시므로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의 특별한 연대를 산출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부활과 심판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순식간에 홀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고전.15:51-52). 그리스도의 재림 순간에는 적어도 심판 받을 그들은 지금과 같은 시간 차원이 아닌 다른 시간 차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심판에 책임 있는 각자가 심판대에서 그들의 생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심판자이신 주 예수와 어느 정도 토론할 것이라는 것은 성서의 일반적 원칙이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 하더이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

28 하나님과 죽음

파하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마.25:44; 전.3:17; 12:14; 눅.12:2,3; 19:23; 겔.18:21-22; 딤후.5:24,25; 롬.14:11,12). 책임 있는 허다한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져, 그 모든 사람을 일일이 즉각 심판해야 함으로, 시간의 의미가 중지되든가 또는 압축될 것을 추측해야 한다. 그 단계에서 시간이 압축될 것이므로, 부활과 심판의 전과정이 “순식간에 홀연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어떤 때는 의인이 영생을 받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덤에서 심판대로 옮겨진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순식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구절들에서 중요한 사실은 영생은 부활에서가 아니라, 심판에서 주신다고 성서가 가르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의인이 그 나팔 소리에 심판대로 불리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살전.4:17), 그 반면에 고린도전서는 의인들에게 죽지 아니함 -영생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된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고전.15:52). 또한 바울이 부활한 자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용납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부활한 자들로 동일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1:23-24).

변론 14: ‘공중 휴거(携擧)’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할 때에 의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 간다는 ‘공중 휴거설(空中 携擧說)’이 이른바 구원과 교회들 중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이 땅- 지구가 멸망한다는 생각과 관련돼 있다. 우리는 변론 9에서 이 지구의 멸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습 4.7에서 의인의 보상이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전하였다. 이 휴거설의 그릇된 신앙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곡해(曲解)하는데서 생겨난 것이다(살전.4:13-18).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죽은 신자들)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죽은 자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

하나님과 죽음 29

상기한 성서 문장에 있는 한 구절에 집중하여 그것을 중요한 믿음의 근거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이외에도 의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리운다는 뜻이 아닌 것에 주의해야 한다. 신자들이 주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다윗의 위(位)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우리는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중에 영원히 매달려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중이라는 것은 지구 면에서 불과 몇킬로 미터 이내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끌려 올라 간다”고 번역된 헬라말은 “빼앗아 가다(- Snatched away)”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헬라어 구약역본(70인 역본) 레.6:4과 신.28:31에 나오는데, 물건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그것은 행.8:39에서도 나온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Snatched away)),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것은 빌립이 기적적으로 혼연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옮겨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을 자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그대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심판의 자리로 집합하게 가게 될 것이다. 그 곳으로 옮겨지는 수단이 문자 그대로 공중을 통하여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눅.17:26-36). 이것은 사람을 갑자기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묘사이다. 제자들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주님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눅.17:37). 독수리들은 본능적으로 공중을 날아가서 시체가 있는 곳에 앉는다. 그와 같이 심판 받을 자들도 주를 만날 장소, 심판대에 옮겨가게 될 것이다.

30 하나님과 죽음

그리스도의 심판 교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의인들은 믿음의 보상을 받기 전에, 우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그 심판 받을 곳으로 모여야 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험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4:16-18).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므로, 책임 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 올리게 되어, 그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남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공중을 통하여 심판장으로 모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들이 주와 연합하여 이 땅 -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과 재사장, 곧 통치자가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 그릇된 신앙 교리로 인해 이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것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것은 비성서적 교리라고 잘 알려졌지만, 아직도 그것을 신앙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폐단은 비단 이 사회에만 극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서 여러번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해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聖書)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臆志)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편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解釋하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3:16)고 경고하였다.

이것은 성서를 옳바르게 해석한 지식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입증하는 것이며, 또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성적으로 읽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야웨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능(知能)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심으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성서 독자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공부하기를 부탁 드리는 바이다. “찬송을 받으실 야웨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시.119:12,15-16).

학습 4: 학습 문제와 해답

1.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a) 영혼이 하늘에 간다
 - b) 무의식 상태가 된다
 - c) 영혼이 심판 받을 때까지 어떤 곳에 남아 있다
 - d) 악한 영혼은 지옥에 가고 선한 영혼은 하늘에 간다.
2. 영혼이란 무엇인가?
 - a) 사람에게 있는 불멸의 존재이다
 - b) 그것은 ‘몸, 사람, 생물, 피조물’ 등을 의미한다
 - c) 영 또는 유령과 동일한 것이다
 - d) 사람이 죽은 후 하늘 또는 지옥에 가게되는 그 어떤 것이다.
3. 사람의 영은 무엇인가?

4. 사람의 본성을 간단하게 논하라

5.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상태가 된다고 한 성구 둘을 나열하라.

6.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

7. 누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가?

8. 지옥이란 무엇인가?

9. 계혜나란 무엇인가?

